

· 의과대학생의 성격유형과 전공 및 대학생활 만족도

연세대학교 의과학사업단, 의학교육학과¹ 신흠임 · 양은배¹

Personality types of medical students and their satisfaction with major and student life

Hong-Im Shin, Eun-Bae Yang¹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bstract =

Personality types of medical students and their satisfaction with major and student life

Objective: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personality preferences of medical students an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profiles and their satisfaction with major and student life.

Methods: The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 which measures personality preferences, was administered by medical students(n=94) who began

to qualify from th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in 2007. The resulting personality profiles of the medical students were correlated with scores of the satisfaction with major and student life.

Results: First, there were more preference types of Introversion(61.71%), Sensing(67.66%), Thinking(73.41%) and Judging(61.71%) than Extraversion (38.29%), Intuition(22.34%), Feeling (26.59%) and Perception(38.29%). Most medical students are personality type ISTJ(24.21%), followed by ESTJ(17.02%). Second, students with the preference for Extraversion and Intuition were more satisfied with their major and student life. Third, the preference for Judging showed higher scores in the satisfaction with major.

교신저자 : 양은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과
(120-752)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성산로 260번지
전화 : 02-2228-2511, 팩스 : 02-364-5450
Email : nara@yuhs.ac

Conclusions: This study might give implications for the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uccessful studying of medical students.

Key Words: personality types, satisfaction with major, psychological well-being, MBTI

서론

성격은 개인의 독특하고 지속적인 정서, 사고 및 행동양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테오프라투스(Theophratus, 372~289 B.C.)는 동일한 교육을 받은 그리스인들 사이에 성격차가 생기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으며(Lee, 1989), 이러한 개인차에 대한 관심은 비단 심리학이나 철학의 연구문제일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좀 더 적합한 환경

을 선택하고 적응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에게 던지는 물음이라고 할 수 있다.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는 C.G.Jung의 심리유형이론을 토대로 Briggs와 Myers가 1940년경에 고안한 성격유형 검사이며, 아래의 Fig.1과 같이 개인이 에너지를 얻는 근원,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 의사결정 방식 및 삶의 양식에 있어 각기 서로 다른 선호 경향을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16개의 각각 다양한 성격유형을 분류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정택과 심혜숙(1990)에 의해 표준화되어 대인관계에서 의사소통 방식의 개선, 비행 청소년 성격유형의 분석(Sim & Kim, 1998), 대학생의 성격, 전공 및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분석(Song & Chi, 1996) 등 다양한 연구목적에 활용하고 있다. 의학교육의 맥락에서는 MBTI 성격유형과 대인관계 문제 또는 의사-환자 의사소통간의 관계(Ang, 2002; Clack, Allen, Cooper & Head, 2004; Moon et al., 2006; Yang et al., 2007), MBTI 성격유형

Extraversion(E)	Focus of Attention ←-----→	Introversion(I)
Sensing(S)	Taking in Information ←-----→	Intuition(N)
Thinking(T)	Decision Making ←-----→	Feeling(F)
Judging(J)	Managing one's Life ←-----→	Perception(P)

Fig. 1. The MBTI Personality Preferences

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Kim, 1999; Kim et al., 2005), MBTI 성격유형과 전공선택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MBTI에서는 개인의 선호경향을 다음과 같이 모두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선호경향의 조합을 통해 아래에 제시된 Table I 과 같이 16가지 성격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가. 외향성-내향성
(Extraversion-Introversion)**

외향성과 내향성의 차원은 개인의 주의집중과 에너지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를 나타낸다. 외향성의 사람들은 외부세계를 지향하며, 이러한 외부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반면, 내향성의 사람들은 자신의 내부 세계를 지향하며, 내면세계의 관념적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다.

나. 감각형-직관형(Sensing-Intuition)

감각기능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오관에 의해 받아들여진 직접적 경험에 의한 정보를 중시하며, 실제적이고 현실적인데 비해 직관기능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추론해낼 수 있는 가능성, 심오한 의미, 본질적 패턴을 중시한다.

다. 사고형-감정형(Thinking-Feeling)

사고기능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객관적인 원리, 원칙을 중심으로 어떤 특별한 선택이나 행동에 대한 결과들을 예측하여 의사를 결정하며, 감정기능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인간중심의 가치에 중심을 두며, 대인관계에 있어 친화, 온정 및 조화를 추구한다.

라. 판단형-인식형(Judging-Perception)

판단기능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계획을 세우고 질서가 있는데 비해 인식기능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각각의 상황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개방적이고 자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MBTI 검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첫째, 의과대학생들의 선호경향 및 성격유형을 분석한다. 둘째, 의과대학생들의 성격유형에 따른 전공 및 대학생활 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하여, 의과대학의 학습 및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성격적 특징을 추출해낸다. 이 결과를 통해 의과대학생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성격적 특징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학생 지도 및 상담에 기여하고자 한다.

Table I. 16 Personality Types of MBTI

ISTJ	ISFJ	INFJ	INTJ
ISTP	ISFP	INFP	INTP
ESTP	ESFP	ENFP	ENTP
ESTJ	ESFJ	ENFJ	ENTJ

대상 및 방법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07년 2월 28일 MBTI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검사에는 남학생 73명(77.7%)과 여학생 21명(22.3%)의 총 94명이 참가하였다. MBTI 검사는 자가채점형 도구인 GS형을 사용하였으며, 이 도구는 네 가지 선호경향의 지표에 따라 총 9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공 및 대학생활만족도는 별도의 문항으로 분리하여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에 따라 응답하도록 하여 조사하였다. MBTI 성격유형과 전공 및 대학생활 만족도간의 관계는 SPSS WIN 12.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Pearson 상관분석, t검증 및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05와 .01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결 과

가. 선호경향에 대한 분석

아래의 Table II는 의과대학 학생의 선호경향에 대한 빈도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

로 볼 때 내향성(61.71%)이 외향성(38.29%)보다, 감각형(67.66%)이 직관형(22.34%)보다, 사고형(73.41%)이 감정형(26.59%)보다, 판단형(61.71%)이 인식형(38.29%)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선호경향은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외부세계보다는 내면 세계로부터 에너지를 얻고, 미래지향적이기보다는 현실지향적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적 가능성보다는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정보를 선호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의사결정방식에 있어서 감정이나 대인관계의 조화보다는 논리적인 원칙에 따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을 중시하고, 자신의 생활양식에 있어서 자율성이나 융통성보다는 조절, 통제 및 질서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성격유형에 대한 분석

Table III와 같이 성격유형에 대한 분포를 살펴보면, ISTJ(24.21%)와 ESTJ(17.02%)는 전체 16가지의 성격 유형 중 의과대학생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성격유형은 책임감이 있고 논리적·분석적인 장점이 있는 반면에 감정기능(F)이 부족하여 타인과의 의사소통과정에서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며 정서표현에 노력해야 하는 유형이다.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유형은 INFP, ESFJ

Table II. Frequency of MBTI Preferences

Preferences	No.	%	Preferences	No.	%
Extraversion(E)	36	38.29%	Thinking(T)	69	73.41%
Introversion(I)	58	61.71%	Feeling(F)	25	26.59%
Sensing(S)	73	67.66%	Judging(J)	58	61.71%
Intuition(N)	21	22.34%	Perception(P)	36	38.29%

등으로 ISTJ나 ESTJ에 비해 감정기능이나 인식기능을 중시하는 유형이다.

다. 학생들의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 만족도에 대한 분석

1) 전공 및 대학생활 만족도

학생들의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 만족도는 각각 평균 3.94(표준편차: 0.605)와 평균 3.72(표준편차: 0.734)였으며, 자신의 전공 및 대학생활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전공 만족도는 대학생활만족도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t(84) = 2.705, p < .01^*$),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 만족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에 있어서($r = .356, p < .01^*$),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만족도도 같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2) 성별,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 만족도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전공 만족도($f(1, 83) = .654, p > .40$) 및 대학생활 만족도($f(1, 83) = 1.433, p > .20$)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다.

3) 학생들의 성격유형,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 만족도

의과대학생에게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성격유형인 ISTJ 및 ESTJ의 학생들과 다른 성격유형의 학생들 간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보았다. ISTJ/ESTJ 및 그 외 다른 성격유형을 각각 하나의 집단으로 분류하여 두 가지 만족도 문항에 대해 집단 간의 차이유무를 변량분석을 통해 검증해본 결과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F(1, 82) = .607, p > .40$). 이에 따라 학생들의 전공/대학생활 만족도는 성격유형의 빈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4) 학생들의 선호경향,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 만족도

학생들의 선호경향에 따른 전공/대학생활 만족도를 t-검정으로 분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Table IV와 같이 내향성-외향성 및 감각-직관에 따른 선호경향 및 전공/대학생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는 내향성 보다는 외향성의 학생들에게서 좀 더 높은 전공만족도($t(91) = -1.832, p < .10$)와 대

Table III. Frequency of MBTI Personality Types

Personality Types	No.	%	Personality Types	No.	%
ISTJ	23	24.21%	INFJ	0	0.00%
ISTP	7	7.44%	INFP	3	3.19%
ESTP	5	5.31%	ENFP	0	0.00%
ESTJ	16	17.02%	ENFJ	0	0.00%
ISFJ	8	8.51%	INTJ	5	5.31%
ISFP	7	7.44%	INTP	5	5.31%
ESFP	4	4.25%	ENTP	5	5.31%
ESFJ	3	3.19%	ENTJ	3	3.19%

학생활만족도($t(84) = -1.760, p < .10$)를 보여주었으며, 감각기능(현실지향, 실제적 감각 중시)보다는 직관기능(미래지향, 잠재력, 본질 중시)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전공($t(91) = -1.343, p < .20$)과 대학생활($t(83) = -1.256, p < .20$)에 좀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판단기능을 선호하는 학생들의 전공만족도가 인식기능을 선호하는 학생들의 것보다 좀 더 높았다($t(91) = 1.292, p = .20$). 이러한 판단형과 인식형의 차이는 대학생활만족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t(84) = -.733, p > .40$).

고 찰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MBTI 검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의과대학 학생들의 성격유형에는 내향성, 감각형, 사고형, 판단형이 외향성, 직관형, 감정형, 인식형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학생들이 자신의 내면세계를 추구하고, 현실지

향으로 실제적 감각을 중시하며,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감정보다는 논리적인 원칙을 중요시 하며, 생활양식에서는 조절, 통제 및 질서를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선호경향은 대학생 한국 표준(Norm) 선호경향을 조사한 연구에서 내향성(56%), 감각형(73%), 사고형(57%) 그리고 판단형(55%)이 외향성(44%), 직관형(26.79%), 감정형(43.16%) 및 인식형(45.18%)보다 더 자주 발견된 것과 유사하다(Kim & Sim, 1990). 이 성격유형은 논리적이며 추진력이 있고, 과제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이행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삶에 대한 과업지향적인 태도로 인해 감정기능을 발달시키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며 대인관계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완할 것이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의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 만족도는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 만족도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셋째, 성격유형 및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내향성의 학생들보다는 외향성

Table IV. Preferences and Satisfaction with Major and Student Life

Preferences	Satisfaction with Major			Satisfaction with Student Life		
	N	Mean(SD)	t	N	Mean(SD)	t
Introversion	58	3.84(.616)	-1.832	55	3.62(.623)	-1.760
Extraversion	35	4.09(.612)		31	3.90(.870)	
Sensing	72	3.89(.595)	-1.343	66	3.67(.771)	-1.256
Intuition	21	4.10(.700)		20	3.90(.553)	
Thinking	68	3.94(.644)	.145	64	3.70(.706)	-.384
Feeling	25	3.92(.572)		22	3.77(.813)	
Judging	58	4.00(.592)	1.292	56	3.68(.716)	-.733
Perception	35	3.83(.664)		30	3.80(.761)	

의 학생들이, 감각형의 학생들보다는 직관형의 학생들이 좀 더 전공 및 대학생활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조절과 통제, 질서를 중요시하는 판단형의 학생들이 자율성과 융통성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인식형의 학생들보다 전공에 좀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판단에 대한 성격적 선호경향이 의과대학의 학습특성에 좀 더 부합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볼 때, 외향성의 적극적인 활동, 대인관계에 대한 흥미 및 직관형의 학생들이 가진 미래지향적 관점, 본질에 대한 추구 및 판단형의 자신의 생활에 대한 조절 및 질서가 의과대학생들에게 자신의 전공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만족스러운 태도를 갖게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결과는 의과대학 학습 및 생활에 부적응 문제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지도 및 상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참고문헌

- Ang, M. (2002). Advanced communication skills: conflict management and persuasion. *Academic Medicine*, 77(11), 1166-1166.
- Clack, G.B., Allen, J., Cooper, D., & Head, J.O. (2004). Personality differences between doctors and their patients: implications for the teaching of communication skills. *Medical Education*, 38, 177- 186.
- Harrington, R., & Loffredo, D.A.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self-consciousness, and the Myers-Briggs Type Inventory Dimensions. *The Journal of Psychology*, 135(4), 439-450.
- Kim, S.(199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study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of medical students.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11(2), 271-284.
- Kim, S., Kim, J.H., & Hur, Y.R.(2005). A proposal on educational method of studying by comparing medical students' personality types and class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17(2), 107-119.
- Kim, E.K, Yang, E.B., & Kim, S.J. (2007). Exploring the characteristics of interpersonal problems on medical students' personality types.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19(2), 143-151.
- Kim, J.T., & Sim, H.S.(1990). A study of korean standardization of Myers-Briggs Type Indicator(MBTI).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3(1), 44-72.
- Kim, J.T., & Sim, H.S.(1995). *A guide to the development and use of the MBTI*. Seoul: Korean Psychological Testing Institute.
- Kim, J.T., & Jung, D.J.(1998). A study on the validity of MBTI. *Journal of the Korea Academy of Psychological*

- Type*, 5(1), 25-54.
- Moon, S.W., Nam, B.W., S대, J.S., Ryu, E.J., Kweon, H.J., Sohn, I.K., & Hahm, W.(2006). Patientcenteredness associated with personality traits of medical students.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18(1), 77-85.
- Song, M.S., & Chi, E.L.(1996). University students' personality, major,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4(1), 113-129.
- Sim. H.S., & Kim. M.K.(1998). The relationship of psychological types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in Juvenile Delinquents on Probat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0(1), 227-250.
- Lee. H.S.(1989). *The psychology of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Seoul: WooSeong.